

이동근 도록

'가족'이라는 아포리아

이동근선생이 촬영한 '다문화가족'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갖는 따스함과 동시에, 그 다난多難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따스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가'라고 멈칫하게 된다. 이동근선생의 작품에는 그런 힘이 있다.

한 마디로 '다문화'라고 불리는 현실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난多難함도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사진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 부인의 표정은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 다른 사진에서는 몽고의 민족의상으로 멋을 낸 부인의 강한 표정과 그녀의 발톱에 칠해져 있는 패디큐어의 언밸런스가, 의상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남편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있고, 몇 사람은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 결혼상대를 찾지 못한 남편, 가난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서 이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뛰어들어 부인, 이들에 의해 형성된 가족은 '가족'이라는 것이 갖는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가족'이라는 현상은 단지 편안한 곳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나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단위를 형성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이 힘을 모아 살아간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것은 허위는 아니지만, '가족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과 표리일체다.

사진뿐 아니라 '가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가족의 한 쪽 면만(많은 경우 전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작품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일면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루하다. 가족의 양면이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야말로, 예술가가 응시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은 하나의 아포리아다. '가족'이 '성性'이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술에서 줄곧 중대한 테마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 역시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타자끼리의 공동생활을 의미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이런 이중성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초상은 일부의 '다문화가족'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이동근선생이 위의 내용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섬세한 사람이고, 맑은 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섬세함이 없으면, 다양한 가족들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찍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눈이 맑다는 것은, 실제로 그는 동그랗고 귀여운 눈을 가졌는데, 그러한 외견상의 모습만이 아니다. 눈이 맑지 않으면 세상에 널리 확산된 가족관에 눈이

탁해져, 앞에서 말한 '가족'의 아포리아를 오려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내가 이동근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겨울, 도쿄 신주쿠에서다. 귀국하기 전에 나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때 함께 자리했던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재일조선인 여성의 스냅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제자인데, 그야말로 힘든 '가족'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동근 선생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무언중에 무엇인가를 느낀 것이다. 나중에 그때의 스냅사진을 보니, 거기에는 그녀가 평소에 보인 적 없던 표정이 찍혀있었다. 긴장을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닌 내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내면을 들어내 보이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처음 만난 젊은 여성,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대의 이런 표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다니,,,,, 그 비밀을 그가 가진 '섬세함'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안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그는 '다문화가족'의 초상을 찍은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인데 나의 이전 제자 중에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있었다. 그녀는 일본국적으로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일반적인 일본인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기말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혼자 남은 그녀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실은 나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집은 작은 지방도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노동력으로서 시집을 왔다. 그러나 내가 철이 들었을 무렵부터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 모습밖에 없다. 아버지와도 다른 가족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정신의 균형을 잃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차가웠다. 노동력으로서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의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한국인'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경멸했다. 내가 '한국인'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 수 없었다. 지금 스무 살이 넘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처음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나 딸에게조차 무시당했던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그녀는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모들을 만났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잠자코 손을 마주잡고 울었다. '그것으로 응어리진 무언가가 녹아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그녀 자신도 아직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것을 친한 친구에게 밝힐 수 없고, 평범한 일본인을 가장하며 지내고 있다.

'다문화가족' 그 하나하나에 틀림없이 이와 비슷한 삽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맑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국민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일본 국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재일조선인을 포함해 많은 재일외국인도 피해를 입었다. 원전사고의 방사능 피해로,

생산한 우유를 출하할 수 없게 된 어느 낙농가는 빗만 남기고 자살했다. 그 아내는 필리핀사람이다. 두 명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남편을 잃고 빗만 남은 이 여성은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나라에서 앞으로 얼마나 고생해야 할까. 이런 '다문화가족'이 후쿠시마 현에만 수 천 명 존재한다.

남자의 여자에 대한 차별, 가진 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식민지배를 했던 자의 지배당했던 자에 대한 차별,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인 것이 '다문화가족'이다. 하물며 한국과 베트남은 외화벌이를 위해 파병한 나라와 자국민이 학살당한 나라라는 관계에 있다. 전자가 그것을 자각하지 않은 채, 양쪽의 평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이나 그 아이들에게는, 식민지배의 역사를 자각하려고 하지 않는 다수자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제일조선인과 같은 비애나 고뇌가 있을 것이다.

2012년 11월 부산대학교 인문연구소 주최로, 디아스포라를 테마로 해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을 때, 나는 이동근선생의 작품을 전시하도록 주최자에게 조언했다. '가족은 훌륭하다'는 상찬이 그런 것처럼, '다문화'가 훌륭하다는 담론도 일면적이다. '다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이나 또는 학회에서의 유행현상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행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근선생의 작품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한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간 여성이 비포장 시골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사진이다.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질주하고 있다. 옛날에(내가 어렸을 때기 때문에, 꽤 오래 전이다) '월광가면月光假面'이라는 만화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알려졌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이 작품에서 '월광가면'을 떠올렸다.

달려라! 월광가면. 베트남의 여자 월광가면이여. 먼지를 일으키며 곧장 달려라. 당신이 가는 길은 험난하고, 끝이 아득하지만,,,,,,

서경식(작가)